

한국복지패널 소득 자료의 특징과 활용례



Characteristics and Use Cases of Korea
Welfare Panel Income Data

여유진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한국복지패널 소득 자료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주요 특징으로 꼽을 수 있다. 첫째, 저소득층을 과대 표집함으로써 빈곤정책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다. 둘째, 공적이전소득의 세부적이고도 정확한 조사로 개별 복지 제도와 정책의 효과 분석에 유리하다. 셋째, 소득과 더불어 지출, 재산, 부채에 대한 세부 항목도 포함되어 있어 가구의 경제적 복지에 대한 통합적 분석이 가능하다. 넷째, 빈곤의 대리변수로 널리 활용되는 박탈 경험에 관한 항목을 포함하고 있다. 다섯째, 가구원조사표에서 개인이 수급하는 각종 복지급여의 수급 실태를 조사함으로써 가구 단위뿐 아니라 개인 단위의 분석이 가능하다. 여섯째, 가구 경제와 역동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건강 상태와 행태, 정신건강, 가족관계, 인식과 태도 등에 대한 설문을 포함하고 있어 다학제·융복합 연구 가능성을 제고했다. 일곱째, 사회이동 연구에 활용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1. 들어가며

패널 데이터(panel data)는 동일 개인, 가구, 기업 등을 여러 번 조사하여 획득된 종단 데이터(longitudinal data)이다. 우리나라 최초의 가구 패널은 대우경제연구소에서 구축한 ‘한국가구경제활동조사’(1993~1998년)이며, 한국노동패널

이 그 뒤를 이었다. ‘한국노동패널’은 비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5000가구를 대상으로 1998년 1차 조사가 완료되었으며 현재까지 데이터가 구축되고 있는 최장기 가구패널이다. 전국 대표성을 확보하고 있는 가구패널로서는 세 번째라 할 수 있는 한국복지패널은 제주도와 농어촌을 포함한 전국 7072가구를 대상으로 2006년에 구축되었

다. 당시 기준으로 한국복지패널은 가장 대표성이 높고 표본 수도 큰 패널이었다. 한국복지패널은 2012년(7차 웨이브)에 1800가구 표본을 추가하였으며, 2019년(14차 웨이브) 현재 분가 가구를 포함하여 6331가구가 조사 완료된 상태이다.

한국복지패널의 많은 장점 중 최우선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은 소득, 재산(부채), 소비지출, 박탈 경험, 복지 수급 현황 등 가구 경제와 복지 수준을 계측할 수 있는 정밀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는 점이다. 본문에서는 소득을 중심으로 한국복지패널이 가진 장점과 한계를 서술하고, 한국복지패널의 소득 데이터를 활용한 재분배 효과 분석 예시를 통해 데이터의 강점과 향후 보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2. 한국복지패널 소득 자료의 특징

한국복지패널은 공적이전소득과 사회서비스의 다차원적이고 동태적인 효과를 분석하고자 하는 데 일차적 목적이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실제로 복지패널 1차 기초보고서에서 한국복지패널의 목적을 “빈곤층과 차상위층의 규모, 생활 실태, 복지 욕구 등을 동태적으로 파악”하고 “정책 효과를 평가함으로써 정책 형성과 피드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적시하고 있다(김미곤 외, 2006, p. 68). 이러한 목적에 부합하는

패널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저소득층의 경제 수준과 복지 수준에 대한 타당도와 신뢰도 높은 데이터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복지패널 데이터의 특징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로 제시될 수 있다.

첫째, 한국복지패널은 저소득층을 과대 표집함으로써 빈곤정책의 효과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분석에 유리하게 설계되었다. 우리나라의 가구 빈곤율은 1인 균등화된 중위소득 50%를 기준으로 대략 15~20% 내외, 중위소득 60%를 기준으로 20~25% 내외이다.¹⁾ 따라서 약 7000가구를 지역과 모집단 특성에 따라 층화 비례 표본추출할 경우 중위소득 60% 미만 가구는 1400~1750가구 내외가 추출될 것이다. 적지 않은 표본 규모지만 경제활동 상태별, 연령별 등으로 세분화하여 분석할 경우 특정 칼럼은 유효 표본이 확보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에 한국복지패널은 전체 표본의 절반인 약 3500가구를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로 과대 표집함으로써 저소득층 분석에 유리하도록 설계되었다. 즉, 구축 단계에서 빈곤층, 기초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복지 욕구가 높은 저소득 집단에 대한 세밀한 동태 분석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것이다. 물론 횡단가중치를 부여함으로써 기술분석(description analysis)에서는 전 가구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정되었다.

둘째, 한국복지패널은 어떤 가구패널보다 공

1) 가계동향조사 2016년 중위 가처분소득 50% 기준 가구 빈곤율은 19.3%, 60% 기준 가구 빈곤율은 24.3%였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소득보장연구실, 2018).

표 1. 한국복지패널의 소득 분류와 구성 요소

개념	구성 요소(단위: 연간)	한국복지패널의 세부화된 소득 요소
근로소득	임금소득+사업소득+부업소득	임금소득 =상용근로자 임금소득+임시일용근로자 임금소득 사업 및 부업소득=자영자 및 사업주의 (순)사업소득+농림수산업소득+어업소득+기타근로소득
일차소득	임금소득+사업소득+농어업소득+부업소득+ 재산소득	재산소득 =이자·배당금+임대수입+기타재산소득
시장소득	임금소득+사업소득+농어업소득+부업소득+재산소득+ 사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 =부모나 자녀로부터의 보조금+민간보험(개인연금, 퇴직금)+기타 민간보조금
수정시장소득	임금소득+사업소득+농어업소득+부업소득+재산소득+ 사적이전소득-사적이전지출	
경상소득	임금소득+사업소득+농어업소득+부업소득+재산소득+사적이전소득(-사적이전지출)+ 공적이전소득	공적이전소득 =사회보험(공적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기초보장급여(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기타 정부보조금(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기초연금, 한부모가족 지원, 가정위탁금, 아동수당, 양육수당, 보육료 지원, 학비 지원, 국가유공자 보조금, 농어업 정부보조금, 긴급복지지원금, 기타 바우처지원금, 근로장려세제, 자녀장녀세제, 급식비 지원, 에너지 감면, 통신비 감면, 기타 보조금)
가처분 소득	임금소득+사업소득+농어업소득+부업소득+재산소득+사적이전소득(-사적이전지출)+공적이전소득 - 조세 및 사회보장부담금	조세 및 사회보장부담금 =(세금+사회보장부담금)×12

주: 한국복지패널 14차(2019년) 조사 기준임.

적이전소득이 세부적이고도 정확하게 조사됨으로써 개별 복지 제도와 정책의 효과 분석이 가능하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단계별 소득 산정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하위 항목의 세부 소득까지 파악할 수 있다. 공적연금,²⁾ 산재보험 급여, 고용보험 급여 등 사회보험, 기초연금, 장애연금(수당), 한부모가족 지원, 기초보장급여 등 현금 이전, 그리고 아이사랑카드(아동보육서비스)와 각종 바우처의 현금화를 통한 현물 이전까지 세부적인 공적이전소득을 포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롭게 신설된 급여를 매년 업데이트함

으로써 최신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한국복지패널의 공적이전소득 항목은 통계청의 사회 이전 항목에 비해 훨씬 세분화되어 있어 공적이전의 재분배 효과 등을 분석하는 데 최적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분석 예시’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보여 주고자 한다.

셋째, 한국복지패널은 소득은 물론이고 소비(가계)지출, 자산(부채)에 대한 세부 항목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가구 경제 수준에 대한 통합적 분석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소득과 재산은 생애 과정에서 부닥치는 사회적 위험(social risk)-질병, 사고, 실업, 노령 등-

2) 2019년 조사부터 공적연금도 직역연금과 국민연금으로 구분하여 조사하고 있다.

표 2. 한국복지패널의 지출 조사 비목 및 구성 요소

개념		지출 비목	구성 요소(단위: 월간)
소비 지출	가계 지출	식료품비	가정식비
			외식비
			주류·담배비
		주거비	월세
			주거관리비 및 수선비
		광열수도비	
		가구·가사용품비	가구집기·가사용품비
			보육료비
		의류·신발비	
		보건의료비	
		교육비	공교육비
			사교육비
		교양오락비	
		교통통신비	교통비
			통신비
		기타 소비지출	
사적이전	비동거 가구원		
	기타		
세금			
사회보장부담금			
이자	주거 관련 부채의 이자/12		
	기타 이자/12		

에 대응하여 개인과 가족의 경제적 복지를 유지하는 두 축(수단)이며, 소비는 가구 복지의 직접적인 실현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세 가지 가구 경제의 축을 함께 분석함으로써 가구 복지 상태에 대한 전체적인 조망이 가능하다. 특히 한국복지패널에서는-비록 가계동향조사와 같은 세분류 항목을 포함하고 있지는 않지만-가구 지출을 비목별로 조사하고 있으며, 학술적·정책적으로 중요한 항목, 예컨대 보육비, 공·사교육비, 월세 등은 추가적으로 조사하고 있다.³⁾

넷째, 한국복지패널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박탈 경험에 관한 문항을 포함함으로써 새로운 빈곤 개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박탈지표(deprivation index)는 타운센트(Townsend, 1979)에 의해 제기된 빈곤의 대안적 측정 방식으로서, “자원의 결핍에서 기인하는 일상적인 생활 양식, 관습과 활동으로부터의 배제”(Calandrino, 2003)로 정의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최저생계비 계측 연구에서 대안적 계측 방식으로 박탈 항목들이 조사·측정되어 왔으며, 이후 소득을 기준으

3) 지출은 조사 시간이 오래 걸리고 조사가 까다롭기 때문에 조사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지만, 그 자체의 의의와 더불어 소득의 정확도를 높이는 데도 기여한다.

로 하는 빈곤 측정의 대안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 한국복지패널에서는 최저생계비 계측 연구에서 사용되고 있는 30~50개의 조사 문항을 축약하여 핵심적 박탈 항목 8개 문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식생활과 관련된 박탈 문항 6개를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⁴⁾ 구글 학술 검색(scholar.google.co.kr)에서 ‘한국복지패널’과 ‘박탈’을 동시에 검색하면 1090개 학술 자료(논문, 학술 자료 등 포함)가 검색될 만큼 한국복지패널의 박탈 항목은 널리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⁵⁾

다섯째, 가구 단위의 소득 조사와는 별도로 개인조사표에서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개인연금, 퇴직금 및 퇴직보험의 수급 여부와 연간 수급액을 세부적으로 조사함으로써, 개인별 복지 수급 실태와 다양한 변수들과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근로(자녀)장려세제 등 가구 단위 급여에 대해서는 제도 인지 여부, 수급 여부와 수급 이력, 활용도, 만족도 등을 가구조사표에서 추가로 조사함으로써 개인과 가구의 경제 및 복지 상태와 공적이전의 효과에 대한 포괄적인 중단·횡단 분석이 가능하다.

여섯째, 한국복지패널은 가구의 경제적 복지 뿐 아니라, 주관적인 건강 상태와 건강 행태, 정

신건강(우울, 자살 생각 등), 주관적 생활 만족도, 가족관계와 성인지, 사회통합 인식, 복지 태도 등 폭넓은 인식과 태도 차원의 설문 문항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가구 경제 수준과 인식 및 태도와의 관련성에 관한 다학제적, 융복합적 연구의 가능성을 제고했다는 점도 큰 장점으로 꼽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이동(social mobility) 연구에의 활용도 제고를 꼽을 수 있다. 한국복지패널은 1차 원표본 가구의 18세 이상 성인 가구원, 조사 시점에 성인 연령으로 진입하였거나 결혼 등을 통해 새롭게 가구원용 조사 대상자가 된 사람 등에게 1회에 한해 개인사에 관한 문항을 조사한다. 개인사(個人史) 부문의 설문 문항에는 아동기 거주 지역, 경제 상태, 직업 이력, 부모의 교육 수준과 직업, 부모로부터의 상속이나 증여 여부 등이 포함되어 있다. 물론 패널 데이터가 한 세대 이상 누적되고 원가구의 표본 규모가 어느 정도 유지될 경우 더욱 정치한 사회이동 연구가 가능하다. 한국복지패널은 아직 그만큼 성숙하지 않은 상태로, 본격적인 세대 간 사회이동 연구에 한계가 있지만 개인사에 대한 회상 질문을 통해 세대 내 및 세대 간 사회이동에 대한 연구가 가능하다. 또한 한국복지패널은 가구 조사에서 아동

4) 8개 핵심 문항은 지난 1년 동안 돈이 없어서 ‘2달 이상 집세가 밀렸거나 집세를 낼 수 없어 이사한 경험’, ‘공과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한 경험’, ‘전기, 전화, 수도 요금 중 하나를 내지 못해 단전, 단수, 단가스된 경험’, ‘자녀 공교육비를 한 달 이상 주지 못한 경험’, ‘추운 겨울 난방을 못 한 경험’, ‘병원에 갈 수 없었던 경험’, ‘가족 중 신용불량자 여부’, ‘연속 6개월 이상 건강보험 미납으로 인한 자격 정지 경험’이다.

5)

보육비, 교육비에 관한 세부 문항을 담고 있으며, 본 조사와 별개로 3년에 한 번 아동에 관한 부가 조사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패널이 성숙함에 따라 더욱 풍부한 사회이동에 관한 연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담고 있기 때문에 다학제적 접근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 여기에서는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한국복지패널의 소득 자료를 활용한 재분배 효과 분석의 간단한 예시를 통해 한국복지패널의 가능성과 향후 과제를 짚어 보고자 한다.⁷⁾

3. 한국복지패널을 활용한 소득재분배 효과 분석 예시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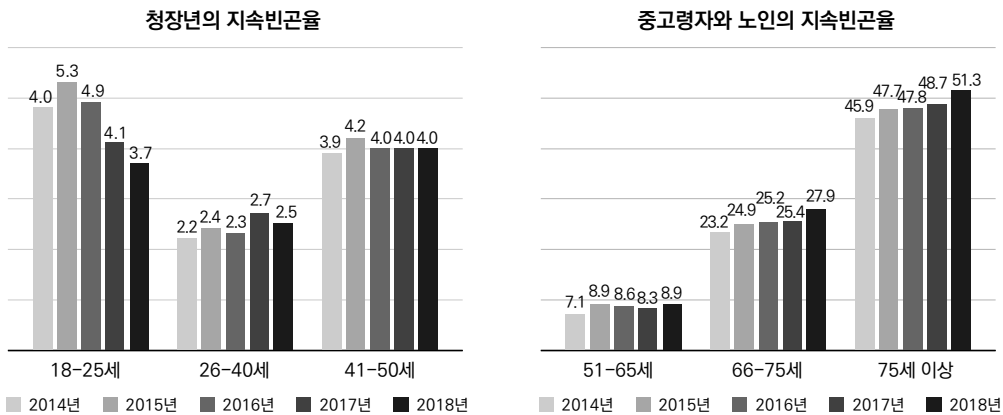
지금까지 논의한 바와 같이, 한국복지패널은 가구의 경제적 수준과 관련된 다양하고 세밀한 자료를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복지, 보건, 정신 건강, 경제, 주거, 가족 등 다양한 방면의 문항을

가. 지속빈곤율

먼저, 아래 그림은 한국복지패널을 활용하여 연령대별 지속빈곤율을 산출한 결과이다. 단년도 횡단조사는 당해 연도 또는 전년도 빈곤율만 산출할 수 있는 반면, 패널조사는 지속 빈곤 실태, 빈곤탈출률과 빈곤진입률 현황과 결정 요인 등

그림 1. 연령대별 지속빈곤율(1인 균등화된 중위 가처분소득 50% 기준)

(단위: %)



주: 지속빈곤율은 당해 연도와 이전 3년 중 적어도 2년간 빈곤한 인구의 비율로 정의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각 연도). 한국복지패널 원자료.

6) 이하 모든 분석 결과는 가구 횡단가중치를 부여하여 산출한 값이다.
 7) 패널 데이터의 장점을 가장 잘 살릴 수 있는 분석은 물론 잠재성장 모형, 고정효과모형 등을 활용한 패널 분석이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한국복지패널을 활용한 소득 자료 분석의 예를 보여 주기 위해 소득 자료만을 활용한 재분배 효과를 보여 주고자 한다.

가구와 개인의 빈곤 역동성을 신출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단기적·중장기적인 빈곤의 특성과 결정 요인을 도출함으로써 빈곤정책 방향 수립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

나. 재분배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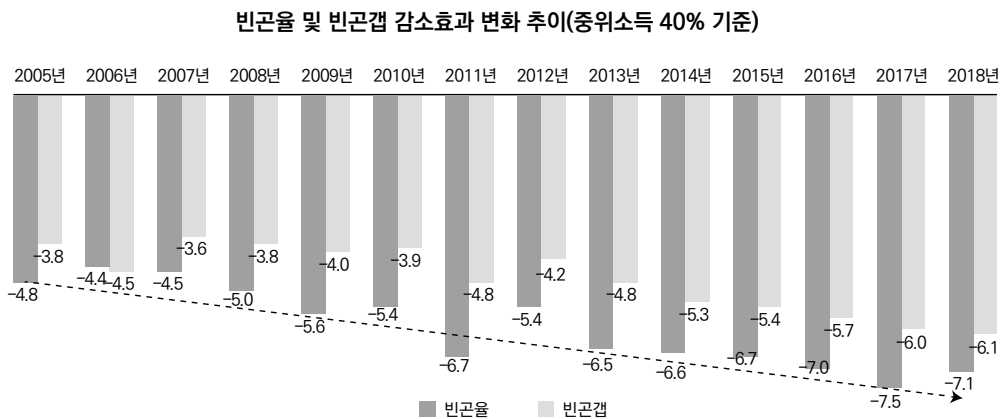
패널 데이터의 한계 중 하나는 전체 인구와 가구의 대표성이 횡단 데이터만큼 높지 않다는 점이다. 1차 웨이브에서 전국 대표 표본을 추출하였다 하더라도 해마다 표본의 고령화가 진행될 뿐 아니라 분가 가구를 완벽하게 추적 조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비록 횡단가중치를 통해 이러

한 한계를 상당 부분 극복하고자 노력한다 하더라도 패널 진행상의 마모 특성을 완벽하게 반영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패널 자료를 활용한 단순 추이 분석은 권장되지 않는다.⁸⁾ 다만, 한국복지패널조사의 장점이라 할 수 있는 공적이전소득의 세부적 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공적이전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살펴보는 것은 유의미한 작업이 될 수 있을 것이다.⁹⁾ [그림 2]와 [그림 3]은 한국복지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여 연도별 소득재분배 효과를 추정한 결과이다.

먼저 [그림 2]는 한국복지패널 데이터를 활용해 시장소득과 가처분소득 빈곤율 및 빈곤갭의 차이를 통해 현금 공적이전의 빈곤 감소 효과를 추

그림 2. 한국복지패널로 본 공적이전의 빈곤 감소 효과(중위소득 40%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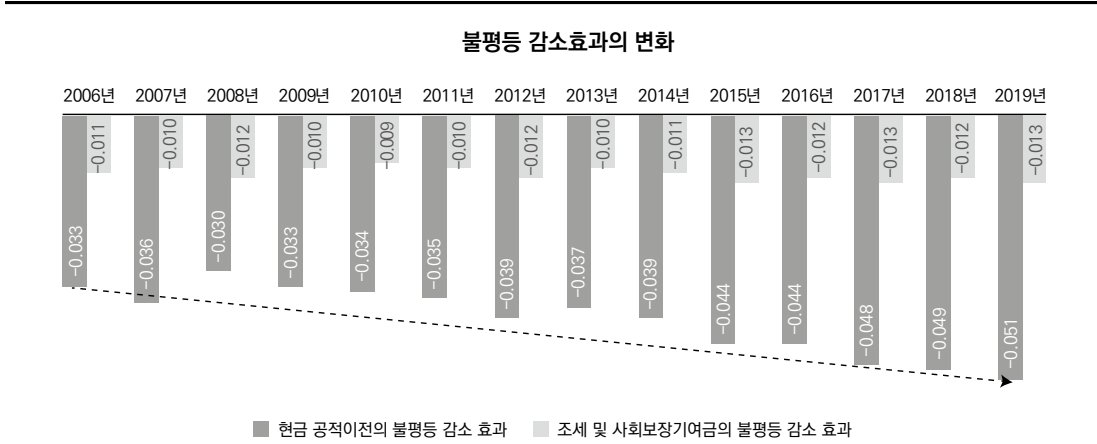
(단위: %p)



주: 빈곤율과 빈곤갭 감소 효과는 시장소득과 가처분소득 빈곤율 및 빈곤갭 수준 간의 차이(%p)로 계산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각 연도), 한국복지패널 원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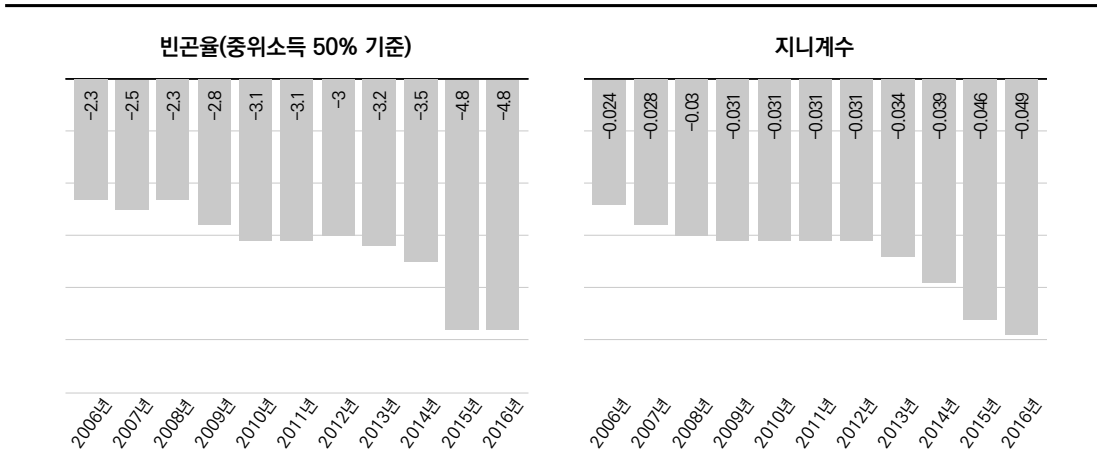
- 8) 실제로 한국복지패널 데이터로 분석한 연도별 빈곤율, 불평등도 추이는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가계금융복지조사로 분석한 추이와 상당히 다른 경향을 보였다.
- 9) 물론 빈곤율, 불평등도의 추이가 모집단과 다르다는 점에서 이러한 분석도 한계가 존재한다. 다만 동일 가구 내에서의 소득이전 효과를 계산하여 평균한다는 점에서 단순 추이 분석에 비해서는 패널의 한계가 다소 상쇄된다고 볼 수 있다.

그림 3. 한국복지패널로 본 공적이전과 조세 및 사회보장기여금의 불평등 감소 효과(지니계수)



주: 현금 공적이전의 불평등 감소 효과는 시장소득과 경상소득 간의 차이, 조세 및 사회보장기여금의 불평등 감소 효과는 경상소득과 가처분소득 간의 차이로 계산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각 연도), 한국복지패널 원자료.

그림 4. 가계동향조사로 본 빈곤 및 불평등 감소 효과



자료: 국가통계포털(소득분배지표, kosis.kr, 2018. 12. 30. 인출)을 바탕으로 그림 자체 작성.

정한 결과로, 최근으로 올수록 빈곤 감소 효과가 커지는 경향을 보여 준다.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적이전과 조세 및 사회보장기여금의 불평등 감소 효과 역시 유사한 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그림 4]에 제시한 바와 같이 가계동향조사의 시장소득과 처분가능소득 간 차이와 거의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지만, 전반적으로 감소폭(재분배 효과)은 한국복지패널을 활용

한 결과치가 더 크다. 이러한 결과는 가계동향조사의 경우 노인 가구가 많은 농어가가 제외되어 있고, 한국복지패널이 가계동향조사에 비해 공적 이전소득을 더 정밀하게 조사하고 있다는 점 등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¹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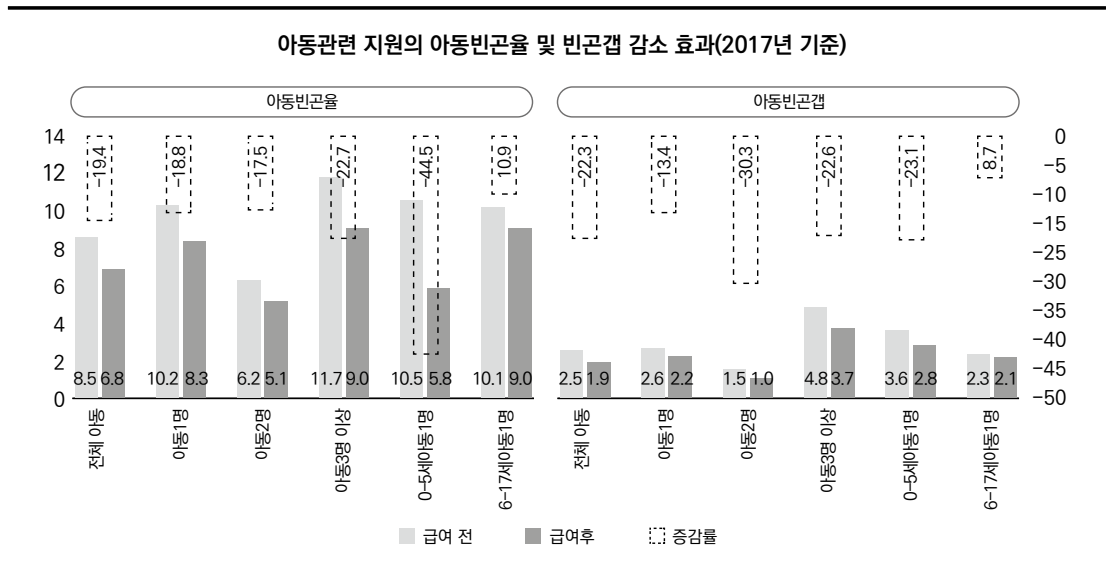
다. 아동 관련 지원의 아동빈곤 감소 효과

한국복지패널의 소득 자료를 활용한 분석의 또 다른 장점으로 세부적인 제도 혹은 정책의 (재)분배 효과를 분석할 수 있도록 주요 제도의

현금, 현물 이전소득액을 조사하고 있는 점임을 밝힌 바 있다. [그림 5]는 아동 관련 공적이전-아동수당(영유아 양육 지원), 보육료 지원(i-사랑카드, 아이즐거웁카드), 근로장려세제, 자녀장려세제, 기초보장제도의 교육급여-의 아동 빈곤율 및 빈곤갭 감소 효과를 분석한 결과이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동의 연령과 수별 분석 결과, 아동 관련 지원의 빈곤 경감 효과는 특히 0~5세 아동이 있는 가구와 아동이 2명 이상인 가구에서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동 관련 지원은 0~5세 아동 1명이 있는 가구의 빈곤율을

그림 5. 아동 관련 지원의 아동 빈곤율 및 빈곤갭 감소 효과(2017년)

(단위: %)



자료: 여유진. (2019). 제5장. 아동이 있는 가구의 분포 변화와 공적 지원의 재분배 효과. 김미곤, 고제이, 이철희, 홍석철, 전병목, 여유진, ...서효진. 아동수당 및 출산·양육 지원체계 발전방안 연구. p. 254를 바탕으로 그림 자체 작성. (원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각 연도). 한국복지패널 원자료.)

10)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복지패널에서는 공적이전소득을 세분화해서 조사하고 있는 데 비해, 가계동향에서는 공적이전 소득에 대해 2016년을 기준으로 볼 때 공적연금, 기초노령연금, 사회수혜금, 사회적 현물이전, 세금환급금 등으로 상대적으로 간략하게 조사하고 있다.

44.5%로 감소시켰으며, 아동이 2명인 가구의 빈곤갭을 30.3% 감소시킨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0~5세 아동이 있는 가구의 경우 보육서비스의 현금화 금액이 상당하고, 아동 수가 많을수록 급여액이 증가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같이 인구 특성별, 제도·정책별 효과를 분석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복지패널 데이터는 정책 분석과 피드백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4. 나가며

구글 학술 검색에서 ‘한국복지패널’로 검색한 결과 약 1만 7900건의 학술 자료가 검색되었다.¹¹⁾ 이러한 검색 건수는 우리나라 패널조사 중 가장 많은 것으로, 한국복지패널의 학술적·정책적 활용도를 가늠할 수 있는 결과이다. 한국복지패널이 학술적·정책적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는 요인은 다양하겠지만, 한국복지패널의 가장 큰 장점은 가구의 경제적 수준과 복지 수준을 진단할 수 있는 소득, 재산, 부채, 지출, 박탈 경험 등의 변수들이 풍부하고 세부적으로 조사되고 있는 점과 저소득층을 과대 표집함으로써 복지정책의 효과 분석 등에 유리하게 설계된 점이라고 생각한다. 가구 경제와 역동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가구(원) 특성, 복지 수급, 신체적·정신적 건강 수준, 가족관계, 인식과 태도 등은 정밀한 소득(자

산) 데이터로 인해 더욱 빛을 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장점은 패널 유지에는 단점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한국복지패널은 주지하는 바와 같이 저소득층 가구를 과대 표집하였고, 저소득층 중 노인 단독 가구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표본 마모율이 다른 패널에 비해 높게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분석에 가용한 유효 표본을 확보하고 표본의 대표성을 유지하는 데는 더 큰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체계적인 표본 관리로 기존 패널 가구를 최대한 유지하기 위한 노력과 아울러, 추가 표본을 통해 유효 표본을 확보하는 방안도 적극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김미곤, 여유진, 손창균, 김문길, 이봉주, 구인회, ...윤민석. (2006). 2006 한국복지패널 기초분석 보고서.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 여유진. (2019). 제5장. 아동이 있는 가구의 분포 변화와 공적 지원의 재분배 효과. 김미곤, 고제이, 이철희, 홍석철, 전병목, 여유진, ...서효진. 아동수당 및 출산·양육 지원체계 발전방안 연구(pp. 225-258). 세종: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11) [https://scholar.google.co.kr/scholar?hl=ko&as_sdt=0%2C5&q=%ED%95%9C%EA%B5%AD%EB%B3%B5%EC%A7%80%ED%8C%A8%EB%84%90&btnG=\(2020. 2. 14. 검색 결과](https://scholar.google.co.kr/scholar?hl=ko&as_sdt=0%2C5&q=%ED%95%9C%EA%B5%AD%EB%B3%B5%EC%A7%80%ED%8C%A8%EB%84%90&btnG=(2020. 2. 14. 검색 결과)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여유진, 남찬섭, 조한나. (2018). 한국형 복지모형
구축: 복지국가의 역사적·철학적 기반 연
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소득보장정책연구실. (2018).
2018년 빈곤통계연보. 세종: 한국보건사
회연구원.
- Calandrino, M. (2003). Low-income and
deprivation in British families, A
study carried out on behalf of DWP.
Working paper 10.
- Francis-Devine, B., Booth, L., & McGuinness,
F. (2019). Poverty in the UK:
statistics. House of commons,
Briefing paper, Number 7096.
- Townsend, P. (1979). Poverty in the United
Kingdom: A survey of household
resources and standards of living.
Harmondsworth: Penquin Books.